



프로야구가 왔다 휴일을 맞아 18일 오후 인천 문학구장을 찾은 관중들이 프로야구 SK 와이번스-KIA 타이거즈 시범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범 “노병은 죽지 않았다”

2안타 1타점 ... 시범경기 KIA, 4-2 SK 꺾고 1차전 설욕

‘선동열호’가 시범경기를 통해 팬들 앞에 첫 선을 보였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10개의 안타를 터트리며 4-2 승리를 거뒀다.

전날 에이스 윤석민의 난조속에 3-6으로 시범경기 첫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던 KIA는 이날 승리로 SK와 1승1패를 주고 받았다.

2회 김상현의 2루타와 함께 KIA의 타선에 불이 붙었다.

나지완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무사 1·2루, 김원섭의 중전안타 때 2루주자 김상현이 홈을 밟았다. 송산의 볼넷을 더해 만들어진 1사 만루에서는 이종범이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주자를 불러들였다. 우익수가 공을 더듬는 사이 김원섭까지 홈에 들어오면서 점수는 3-0이 됐다.

3회에는 나지완이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4번째 점수를 만들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투보들의 테스트가 이뤄졌다.

임준혁이 가장 먼저 마운드에 섰다. 첫타자 정근우를 상대로 볼넷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제구를 보였지만 임준혁은 3이닝 2피안타 3사사구 2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로 승리투수가 됐다.

올 시즌 선발자리를 예약한 좌완 박경태는 신인 박지훈에 이어 5회부터 마운드를 넘겨받아서 3이닝을 책임졌다. 5회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1사 1·2루에 몰린 박경태는 정상호에게 우전안타를 맞았지만 대주자 안정광이 협살에 걸리면서 아웃 카운트 하나를 늘렸다. 이어 박정권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면서 실점없이 위기를 넘겼다. 6·7회에는 삼자범퇴를 기록하면서 시범경기 첫 등판을 끝냈다.

전날 선발로 나선 윤석민은 1회부터 4개의 피안타로 3점을 내주는 등 첫 등판에서 4

실점을 했지만 “원래 전지훈런 연습경기와 시범경기에서 방어율이 좋지 않은 편이다.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하고 컨디션을 점검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체인업과 슬라이더 각이 좋지 않았다. 남은 기간 첫 등판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트론클을 잡는데 주력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경기 첫날부터 4만여 관중이 그라운드에 모여들면서 프로야구 700만 관중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문학 1만5000명을 비롯해 잠실 1만 8000명, 사직 1만843명 등 4만3843명의 야구팬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시범경기 개막전 최대관중 기록(중전기록 3만4101명)이 세워졌다.

18일에는 전날 우천으로 경기가 열리지 않았던 청주에서도 한화와 넥센의 경기가 열리는 등 4개 구장에서 5만7500명의 관중이 찾아 역대 시범경기 최대 관중 기록(중전기록 4만5300명)이 작성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패색 짙은 후반 43분...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광주 FC, 잇따라 두골 ... 제주에 3-2 짜릿한 승리



광주가 안방에서 짜릿한 역전극을 펼쳤다. 광주 FC가 18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FC와의 K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슈바의 역전골로 3-2 승리를 거뒀다.

‘행운의 여신’이 광주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가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3차례나 골대를 맞고 뒤편 나가면서 ‘골대불운’에 올랐지만 광주는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지난 14일 카타르와의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전에서 원투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했던 김동섭이 스타팅멤버로 복귀와 공격 전면에 섰다.

경기시작 2분 만에 물오른 김동섭의 공격 본능이 발휘됐다. 이승기가 힐패스로 밀어준 공을 받은 김동섭이 중앙에서 슈팅을 날리며 제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전반 20분 제주 배일환의 한방에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반 20분 호벨치의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서 광주가 간신히 실점 위기를 넘겼지만 곧이어 배일환의 슈팅이 골문을 가르면서 1-1이 됐다.

광주 최만희 감독이 전반 24분 원발목이 좋지 않은 이승기를 빼고 주앙파울로를 투입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전반 26분 코너킥 상황에서 주앙파울로의 크로스를 받은 복이가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결승골의 주인공 슈바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42분에는 제주 산토스가 날린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가면서 광주 수비진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후반 시작 5분 만에 광주의 골문이 뚫렸다. 제주 배일환이 송진형이 뒤쪽으로 흘러준 공을 받아 오른쪽에서 슈팅을 날려 역전골을 만들었다.

후반 30분 최만희 감독이 박희성 대신 슈바를 넣으면서 공격에 힘을 실었다.

후반 43분 주앙파울로가 해결사로 나섰다. 골에어리어 왼쪽에서 치고 오르던 주앙파울로가 상대수비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주앙파울로는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면서 귀중한 동점골을 기록했다. 주앙파울로의 시즌 2호 골.

이러진 제주의 공격에서 산토스가 버락같은 슈팅을 날렸지만 또 다시 골대를 맞고 뒤편이 됐다.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경기에서 슈바가 영웅이 됐다.

주앙파울로의 패스를 받은 슈바가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골키퍼를 뚫고 골을 터트리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슈바의 골 세러머니가 끝난 후 주심의 경기종료 휘슬이 울렸다. 결승골 주인공 슈바는 한동안 그라운드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경기 끝난 후 인터뷰에서도 슈바는 눈물을 보였다.

슈바는 “지나해 가족, 형제 문제들도 있고 여러가지 힘든 시간이었다. 많은 시간 그라운드에서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열망을 했던 만큼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다. 이번주에 가족이 한국에 도착해서 딸과 가족이 경기장에 왔다”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또 “광주는 내게 선물같은 팀이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다. 팀이 성적을 내는데 일조하는 게 내 목표다. 많은 이들이 광주가 하위권이라고,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보여준 것처럼 약한팀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주었다. 더 올라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성고·화순고·광주일고 첫승

고교야구 주말리그 1라운드

동성고·화순고·광주일고가 ‘2012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라권 1라운드 경기에서 첫승을 거뒀다.

동성고가 17일 군산구장에서 열린 군산상고와의 주말리그 전라권 개막경기에서 광병선의 끝내기 안타로 1-0의 짜릿한 승리를 신고했다. 동성고 선발 박승진이 5회3분의1이닝을 2피안타 3사사구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는 등 9회까지 양팀의 마운드 싸움이 계속됐다. 9회말 2사에서 승부가 결정됐다.

전세민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공격의 불씨를 살렸고, 4번 타자 광병선이 중견수 키를 넘기는 3루타를 터트리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화순고는 진흥고를 상대로 9-2, 8회 풀드 게임승을 거뒀다. 2-2로 맞선 7회말 화순고가 선두타자 김인명의 3루타를 포함해 6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4점을 뽑는데 성공했다. 9

회에도 최민재, 전재환의 3루타 두 개를 묶어 3점을 더하며 9-2 풀드게임승을 완성했다.

진흥고 포수 박진우는 4회 우측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트렸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광주일고는 10회 연장승부처기 끝에 순천효천고를 3-2로 꺾었다. 양팀은 9회까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10회 연장승부에 돌입했다. 효천고가 차명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들며 1-2. 광주일고가 10회말 공격에서 선진원의 투수 앞 번트 안타로 만루를 채웠다. 이어 3번타자 김경엽의 2루타가 나오면서 경기는 3-2 광주일고의 승리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와인&시네마열차 운행(새마을호당일)

새마을호를 개조해서 만든 “와인, 시네마 열차”로 와인 무제한 제공과 와인강좌, 추억의 7080음악과 함께하는 신나는 레크레이션, 최신개봉영화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차상품.

3월25일(일), 3월31일(토)
09:20 광주역 출발
직지사 관광/24가지의 산채정식/와인코리아 견학

1인당 ₩110,000 원

※기차여행은 각역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기차표/항공권/승선권/국제선할인 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섬여행	해외여행
1박2일 홍도/흑산도 ₩169,000원~	2일 대마도 크루즈 ₩239,000원~
2박3일 울릉도/독도 5월 3일, 17일 ₩365,000원~ 5월 11일, 25일 ₩385,000원~	5일 후쿠오카 크루즈 ₩580,000원~
1박2일 한라산등반·올레길 블루나래호 ₩120,000원~	5일 태항산/태산 KE ₩990,000원~
1박2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40,000원~	6일 태항산 위동혜리(매주목) ₩650,000원~
2박3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60,000원~	4일 청도 위동혜리(매주토) ₩330,000원~
1박2일 보길도/청산도 ₩160,000원~	5일 청도/장보고유적지 위동혜리(매주목) ₩450,000원~
	5일 청도/태산/곡부 위동혜리(매주화) ₩460,000원~
	5일 장가계 MU ₩1,200,000원~
	4일 장가계 MU ₩1,100,000원~
	4일 항산 MU ₩670,000원~